

지구환경 악화되면 식량불안, 갈등 초래

전세계 환경이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과 정치적 의지의 부족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이같은 환경악화가 계속된다면 식량불안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경고했다.

UNEP는 최근 열린 관리이사회에 제출한 세계환경전망(GEO) 보고서에서 환경보호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재원 부족으로 실질적 성과는 크지 않은 상태며 앞으로도 이같은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NEP는 환경보호 노력의 진척 과정이 너무 느리게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태라면서 각국이 국민총생산(GDP)의 2-3%만 환경문제에 투자한다면 현재와 같은 비판적인 환경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EP는 이어 물과 땅, 공기, 삼림, 어족자원과 같이 복원이 쉽지 않은 자원을 남용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필수 자원이 고갈돼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화학물질의 사용증가와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그리고 인구 증가, 경작지 감소, 비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무계획한 도시확장 등도 환경악화를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UNEP는 지적했다.

UNEP는 현재와 같은 환경악화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전세계 환경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등이 선행돼야 하며 이같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의 마음자세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UNEP는 각 지역별 환경문제에 대한 분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과밀지역인 아·태지역은 쓰레기의 무단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오염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UNEP는 진단했다.

중동부 유럽지역은 공해로 인한 삼림 및 야생동물 감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남미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삼림감소와 오존층 감소에 따른 자외선 피폭량 증가 등의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밖에 북미지역은 부분적인 쓰레기 매립지 부족과 어족자원의 감소가, 중동지역은 삼림감소와 식수 및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남극지방은 오존구멍 확대와 어족자원 남획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UNEP는 밝혔다.

“자국산 폐기물 자국내 처리마땅”

국제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의 행동대원들이 2월 3일 유독성 화학폐기물을 인접국에 수출하는 한 네덜란드 업체의 본사건물을 점거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동단체 행동대원 약 15명이 이날 네덜란드 남동부에 있는 독성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인 페롤사 본사건물을 점거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 회사에 대해 벨기에의 쓰레기소각로와 시멘트공장이 화학폐기물 처리를 위해 고안되지 않았다고 지적, 폐기물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폐기물 소각시 나오는 연기 등은 주민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양국국경의 생태계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네덜란드가 비용이 저렴하고 폐기물처리규정이 덜 까다로운 벨기에로 매년 5만톤 가량의 유독성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네덜란드가 생산해낸 화학폐기물은 자국 현행법에 따라 자국내에서 특별설계된 시설을 이용해 소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공기오염으로 7천5백명 사망

인도에서는 지난해 심각한 공기오염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명이 천식 등 공기오염관련 질병으로 조기 사망했으며 특히 수도 뉴델리에서만도 7천5백여명이 숨졌다고 인도의 한 호흡기 전문의가 2월 8일 밝혔다.

뉴델리 시내 아폴로병원의 의사 라제시 출라는 이날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공해의 폐해를 교육하는 이동클리닉의 출범식에 참석해 그같이 밝히면서 “국민과 정부등 각계 각층의 참여 없이는 복잡한 공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